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돌아온 KIA 장성호 새 기록 도전

개인 통산 2,500 루타 4구 800개

현재 2,491 루타 · 4구 792개

기량 회복땐 주중 달성 가능

최근 최연소 1,600안타 기록

'장성호는 기록 제조기'

최연소 1천600안타의 주인공 KIA 타이거즈의 장성호가 이번 주말 2천500루타와 4구 800개 기록 달성에 나선다.

31세의 장성호는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프로야구의 기록을 새로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 25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24일 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장성호는 첫 타석에서 정찬헌을 상대로 우전안타를 때려 장종훈 한화 코치의 최연소(33세 5개월 12일) 1천600안타 기록을 30세 7개월 7일로 단축했다.

1천600안타의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양준혁(삼성), 전준호(우리), 장종훈(은퇴), 마해영(롯데) 등 4명뿐이다.

28일 현재 장성호의 통산 안타 수는 1천604개, 2천122개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양준혁과는 518개 차이가 난다. 두 선수의 나이 차는 8년이 난다. 장성호가 한해 평균 131개의 안타를 때린 것을 감안한다면 1위도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28일 현재 장성호는 2천500루타(통산 9번째)에는 9개를 남겨놓고 있고, 800사구(통산 9번째)는 792개로 8개가 부족하다.

1위 양준혁과는 1천105개, 373개 차이가 난다. 매경기 자신의 기록이자 프로야구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양준혁이 타격 부진으로 2군에 머물고 있는 터라 장성호의 기록 경신에 속도가 붙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장성호는 꾸준함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 연속 3할을 기록하며 '3할 타자'로 군림한 장성호는 지난해 부상으로 0.281의 타율을 기록하며 아쉽게도 3할 행진을 마감했다.

올 시즌에도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등 근육이 아파 전지훈련에서 나 홀로 훈련을 했던 장성호는 시즌 중에는 왼손목과 늑골부상을 당해 25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타선의 핵이자 팀의 주장인 장성호가 빠지면서 타선에도 힘이 빠졌다.

팀이 최하위에서 부진하자 장성호는 병상에서 직접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 KIA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서 장성호는 팀의 부진에도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는 주장으로서의 안타까움 심정을 표현하면서 팬들의 격려를 부탁했다.

병상에서도 주장의 역할을 잊지 않은 장성호의 정성 덕분인지 팀은 이날 승리를 거두고 5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게다가 장성호는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5타수 3안타의 맹타를 날리며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부상이 끊이지 않자 장성호는 '타율보다는 홈런과 타점에 전력을 다하겠다'던 올해 목표를 '부상 없이 야구를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복귀전에서 "최연소 1천600안타의 달성보다 오랜만에 그라운드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더 기뻤다"고 소감을 밝힌 장성호는 자신의 기록과 함께 아직 진행중인 팀의 4강 꿈을 향해 방망이를 들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男 양궁 세계新 올림픽 金 전망 밝다

단체 2,039점 1위로 본선행

3차 월드컵 예선 라운드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국제대회 예선 라운드 단체전 세계기록을 12년 만에 갈아치우며 베이징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다.

남자 대표팀은 29일 새벽 터키 안탈랴에서 열린 2008년 제3차 양궁 월드컵 예선 라운드(70m 216발)에서 2천39점(2천160점 만점)을 맞추며 1위로 본선에 올랐다.

2천39점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장용호, 김보람, 오교문)이 쏜 종전 세계기록(2천31점)보다 8점이나 많은 공인 세계신기록이다.

대표팀 3명의 개인전(70m 72발) 점수를 더해 단체전 16강 대진표를 짜는 예선 라운드에서 한국은 박경모(33·인천 계양구청)가 684점으로 망갈 싱 참피아(25·인도)와 동점을 이루고도 엑스텐(10점 원 안의 작은 원) 개수가 11개로 1개 적어 개인전 2위를 달렸다.

하지만 임동현(22·한국체대)과 이창환(26·두산중공업)이 각각 개인전 3위(680점)와 5위(675점)를 차지하는 등 '톱10'에 포함되며 단체전 점수에서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이날 기록은 바람의 방향을 종잡을 수없는 상황에서 거둔 성적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대표팀 4명 중 막내 김재형(18·순천고)은 21위(660점)로 밀려났다. 인도도 단체전 2천35점으로 세계기록을 쐈지만 한국에 밀리는 바람에 빛이 바랬다.

이형택 프랑스 오픈 테니스 탈락

이형택(32·삼성증권)이 프랑스오픈테니스대회 남자단식 2회전 벽을 넘지 못했다.

세계 52위 이형택은 2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4일째 남자단식 2회전에서 웨인 오데스니크(106위·미국)에 1-3으로 졌다. 랭킹은 이형택보다 아래였지만 평소 까다로워하는 왼손잡이인데다 최고시속 210㎞의 강서비스를 날리는 오데스니크는 쉽지 않은 상대였다.

1세트 첫 서브 게임을 뺏기며 끌려가기 시작해 1세트를 2-6으로 내준 이형택은 2세트에서 반격에 성공해 세트스코어 1-1로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이형택은 3세트 게임스코어 1-2로 뒤진 상황에서 다시 서브 게임을 뺏기며 경기 주도권마저 내줬다. 이형택은 4세트 재반격을 노렸지만 첫 서브 게임은 물론 두 번째 서브 게임까지 연달아 내줘 게임스코어 0-4까지 끌려간 끝에 3회전 진출에 실패했다.

오데스니크는 세계 3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와 16강 진출을 다툰다. 이형택은 도미니크 에르바티(슬로바키아)와 한 조를 이룬 복식 경기를 남기고 있다.

메이저 리그 '거포' 소사 내년 WBC 후 은퇴 시사

메이저리그의 거포 새미 소사(40)가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참가를 끝으로 은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소사는 이날 AP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년 WBC에 조국인 도미니카공화국을 대표해 뛰고 싶다"면서 "조국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다시 뛰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 바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소사는 그러나 현재는 자신이 뛸 메이저리그 팀을 물색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해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는 지난해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활동한 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획득했지만 아직 그를 원하는 팀은 없는 상태다.

소사는 지난해에는 역대 5번째로 600홈런을 기록한 주인공이 됐다.

박찬호 시즌 첫 패전 멍에 연장 10회 끝내기打 허용

돌아온 메이저리거 박찬호(35·LA 다저스)가 옛 동료 알폰소 소리아노에게 끝내기 안타를 내주고 시즌 첫 패배 멍에를 뒤집어썼다.

박찬호는 29일(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에서 1-1로 맞선 연장 10회 말 팀의 네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으나 1사 2루에서 소리아노에게 끝내기 안타를 헌납해 패전투수가 됐다. 기록은 3분의 1이닝 2안타, 1실점이었다.

박찬호는 최고 구속 150㎞의 강속구를 뿌리며 볼 카운트 2-2까지 이끌었지만 소리아노가 5구째 바깥쪽 슬라이더(134㎞)를 받아쳐 좌전 끝내기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무릎을 꿇었다. 다저스는 결국 1-2로 졌고 박찬호는 1승1패1세이브를 기록하며 평균자책점이 2.37로 나빠졌다.

◀29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제 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참가팀 대표자들이 추첨을 통해 대진을 확정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무등기 야구 '주사위는 던져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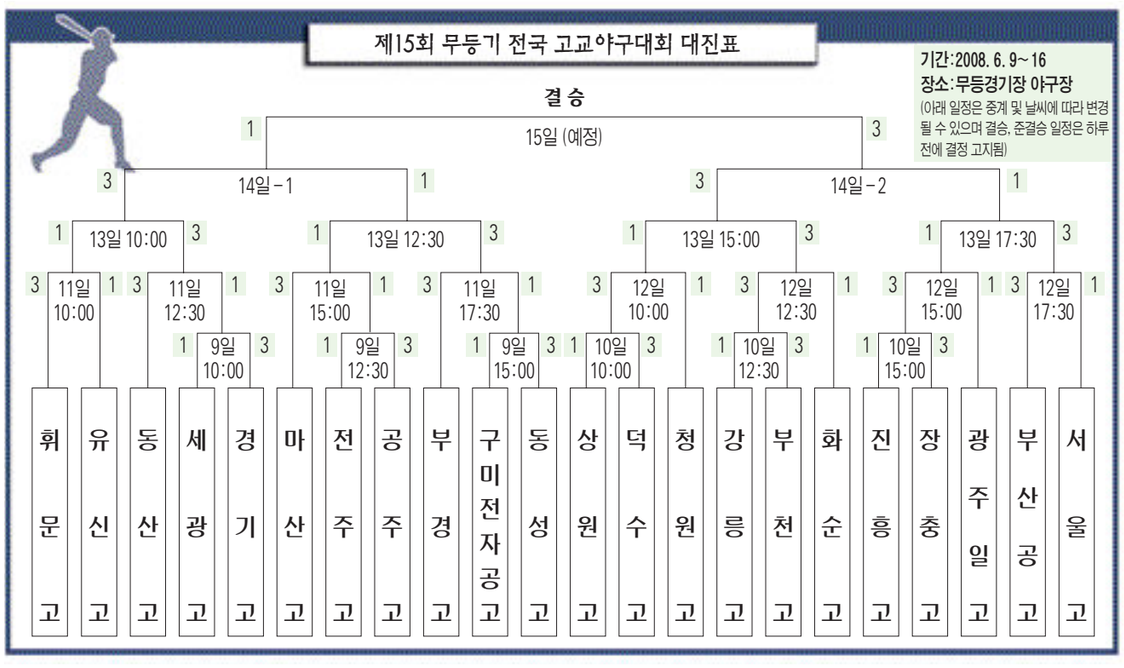
어제 22개팀 대진표 확정

내달 9일부터 '열전 8일'

오는 6월 9일부터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리는 제 15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대표자 회의가 29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전국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22개 고교팀의 대표자가 참석해 대회 출전에 따른 주의사항과 경기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추첨을 통해 대진을 확정했다.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광주일보사와 대한야구 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열전이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황금사자기 우승팀 광주일고와 대통령배 정상에 오른 덕수고, 지난해 무등기 우승팀 장충고 등이 우승기 쟁탈을 위해 치열한 다툼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